

# 생활밀착형 치매안심망 강화

### 익산시, 남중동·신동·모현동 소재마트·약국·베이커리 6개소가맹점 지정

익산시가 지역주민과 함께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 안심망을 강화·확대한다.

시는 초령화 시대를 대비해 지역민과 함께 치매 민관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년 인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남중동, 신동, 모현동 소재 마트, 베이커리, 약국 등 도심권 6개 개인 사업장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선정돼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은 2021년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남성면선 인근의 '남성쇼핑', '보름베이커리'와 신동 '즐거운약국', '정문약국', 모현동 '리반제빵소', '삼송빵집' 등 6개소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가맹점은 치매환자 발견시 시에 신속하게 제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치매에 방 및 진단검사 등 올바른 치매정보제공과 지역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북부권(합월) 인근 6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한데 이어 도심권에 6개소를 추가하며 지역 내 민간 치매안심망을 총 43개소로 확대·구축했다.

지난 2021년부터 치매정책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약국 9개소를 비롯해 편의점, 제과점, 마트, 카페 등 시민 생활밀착형 개인 사업장들의 참여를 유도해 치매 친화적 환경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익산=이재훈 기자

공과 지역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북부권(합월) 인근 6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한데 이어 도심권에 6개소를 추가하며 지역 내 민간 치매안심망을 총 43개소로 확대·구축했다.

지난 2021년부터 치매정책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약국 9개소를 비롯해 편의점, 제과점, 마트, 카페 등 시민 생활밀착형 개인 사업장들의 참여를 유도해 치매 친화적 환경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익산=이재훈 기자

#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구상'

### 익산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이동 '돌봄'을 배움과 성장의 의미로 넓혀 돌봄 주체자를 이동 돌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확대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원광보건대 HIVE센터(센터장 임재현), 익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강선중)와 함께 돌봄 분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동 돌봄 종사자를 위한 순화동 지도사 방과후 놀이지도사 등의 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과 함께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의 부모교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 가정 내 돌봄의 질적 향상과 전문기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이동 돌봄 분야의 활동에 대해 상호 간 소통하고, 운영공간을 공유하는 이동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임재현 HIVE센터장은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신 익산시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돌봄분야 프로그램들을 구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중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각 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시 이동 돌봄의 대표주자로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방과후 이동 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돌봄 종사자와 부모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 '글로벌대학30' 혁신모델 구축 위해 푸에블로 방문

### 군산대 이장호 총장 7박10일 일정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30일부터 7박10일 일정으로 '글로벌대학 30' 혁신모델 구축을 위해 미국 푸에블로를 방문한다.

이 방문에는 박시균 국제교류교육원장, 고석인 입학처장이 동행하며, 방문단은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 콜로라도주립대학(CSU-푸에블로), 푸에블로 시청, CS-인드, 남부콜로라도도동기술연구원(SCITT), 미국 대표 철도장비 시험 및 교육기관인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를 방문한다.

이 방문은 지난해 9월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의 패트리샤 A. 에르지백 총장 니콜라스 A. 그레다서 시장, 데니스 플로레스 시의원 (쥬제스워드 김성권 회장의 군산대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군산대학교와 푸에블로 커뮤니티대학은 학생교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등 글로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대학교는 푸

에블로시와 하이퍼튜브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민관학 협력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푸에블로커뮤니티대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방문단은 세계 최대 풍력타워 생산시설을 갖춘 씨에스윈드의 제2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재학생 현장체험 실습활동 현장을 점검한다. 푸에블로는 해상풍력, 철강, 제조업 운송업의 중심지이고, 세계 최대 풍력타워공장 이 있으며, 이 시설을 한국의 풍력에너지업체인 씨에스윈드가 인수했다. 씨에스윈드는 2024년부터 국내에서 풍력타워를 생산할 계획으로, 군산대학교 학생들은 미국 현지에서 현장체험 실습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TTC(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는 미국 대표 철도장비 시험 및 교육기관이다. 워싱턴DC에 본사를 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술기업 ENSCO가 이곳에서 연구개발, 테스트, 엔지니어링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단은 CEO 제프리 스티븐스 등과 ENSCO의 고속루프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군산대학교, TTC, 푸에블로 시와의 하이퍼튜브 민관학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을 목표로 전라북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전라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하이퍼튜브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에 대응해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사례를 구축하고자, 하이퍼튜브 기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새만금에 근접한 입지적 특성과 적합성, 새만금캠퍼스 활용 가능성, 전기, 토목, IT 등 연계학과의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이퍼튜브 퍼스트무버 대학이 되기 위해 TFT를 구성하며 전략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쌀 과잉생산 대응 전략작물 직불제 연장

군산시가 논 농업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 신청기한을 내달 중순까지 연장한다.

시는 30일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기간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수급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민생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전략작물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 전략작물은 밀, 가루쌀, 콩, 하계조식료(옥수수, 총채벼)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 재배 시 1ha당 50만원, 여름철 논농 재배 시 100만원, 조사료 재배 시 480만원을 지급하며, 논공과 이모작을 할 경우 (겨울철 밀 또는 조사료, 여름철 논콩)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미 공군 무전대와 행정협약 연장

군산시가 미공군 군산기지와 감염병 공동대응에 대한 상호협력력을 연장했다.

군산시보건소는 30일 미 공군 제8의무전대 회의실에서 미 공군 제8의무전대와 행정협약(MOU) 연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성낙영 군산시보건

소장과 린 샌즈(Cd. Rene Saenz) 미 공군 제8의무전대장은 군산지역과 미공군 군산기지의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상호협력력을 도모키로 했다.

보건소는 미 공군 제8의무전대와 감염병 공동대응 등을 위한 행정협약을 2021년 3월에 처음 체결했으며,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금년 3월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긴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며 협약식에 담긴 내용을 조율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식량·교통 요충지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

익산시가 식량·교통 요충지로서 지역 안보태세 확립 강화에 힘을 쏟는다.

시는 3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경 합동 안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인 정현을 익산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충좌 육군 35사단 익산대대장 김중신 익산경찰서장 등을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장 10여명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군 35사단 익산대대의 2023년 주요 훈련계획 보고 및



이에 따른 각 기관의 협조사항과 민·관·군·경·소방 간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논의했다.

김충좌 익산대대장은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강력한 지역방위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익산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전문농업인 육성

익산시는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면 지원 대상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다음달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063-859-431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 대해서는 시군별 배정없이 전국단위로 500명을 선발하며 서류평가와 현장확인, 전문검증기관의 평가 후 5월말 최종 확정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중요 목조문화재 유관기관 합동 진화 훈련

익산시가 익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 훈련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빈번한 불철산발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과 문화재를 보전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대표 목조문화재인 삼곡사, 문수사, 승림사 등에서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시청 산림과 및 문화유산과, 시 소속 산불전문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익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사할 관계자 등 3개 기관 100여명의 인원과 산불진화차 10대, 소방차 10대가 동원됐다.

목조문화재 주변 산림의 산불 발생을 가습해 화재진압을 시작으로 화재진압훈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산 훈련, 응급조치, 사후 수습 등 재난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천과 같이 펼쳤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